

## 2024년 05월 30일(목요일) 시청자위원회 회의 회의록

### 참석

시청자위원 : 강문식 위원장, 안인수 위원, 정상경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기웅 위원, 박성주 위원, 조애숙 위원, 박병희 위원

회사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 위원장

지금부터 여수MBC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호인 사장님 한 썸 부탁드립니다.

### 대표이사

MBC 전체가 총선을 기점으로 눈에 띄는 선두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40 시청자 수는 KBS 보다 2배 이상의 내용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국 뉴스에 대한 분석이지만 모든 지역의 분투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세 계속 이어가서 올 한 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번에는 지역 부서별로 지난 회기 업무 설명과 다음 회기 계획 들어오는 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센터장

콘텐츠센터장 이복현입니다. 5월 추진한 프로그램 내용과 6월 계획 그리고 시청자 위원 여러 분들께서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반영여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규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어바웃 우리동네 트로트 클라쓰 전국 시대 다큐엔 등 티비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들 꾸준히 소화하고 있구요. 라디오에서는 라디오전망대 신나는 오후 음악식당 등 매일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집 프로그램 및 기획 및 제작입니다. 여수 섬특집 2부작을 지금 헌팅을 끝내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들어갔고 도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과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는 거문도 삼삼면 권역입니다.

그래서 거문도 백도를 한편으로 묶고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방도 이쪽으로 묶어서 연달아 제작할 예정이고요. 좀 더 섬에 대해서 재미있게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연예인 프리젠티를 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도 쪽은 브레이브걸스에 유나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나가 한 5일 정도 섬에서 직접 살아보고 백패킹도 해 보고 이런 콘셉트로 해서 섬의 어떤 섬 살이의 삶도 들어보고 또 풍광도 이렇게 꾸준히 촬영을 해서 아름답고 재미있는 재미있다. 이 곁들여진 프로그램 2부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고흥 관광특집을 제작해서 방송 및 방송 예정에 있습니다. 여수관광특집 '지금 여수 어때'는 5월 16일 목요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 주말에 앙코르 방송까지 마쳤습니다. 고흥 관광 특집도 지금 제작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ENG 4쪽지를 재미있게 지금 제작을 했으며 최종 판을 만 들어서 6월 13일 날 방송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도시를 꿈꾸는 순천시 K 디즈니의 꿈이라는 과제로 특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 지금 미팅을 좀 하고 순천시하고 또 관계자들 접촉을 해서요. 좋은 특집이 될 수 있도록 좀 기획하고 있고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보도센터에서 보고하겠지만, 6월 초에 순천시에서 프랑스 안시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가거든요. 동행 취재가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행취재하고 또 저희가 자체 여기서 잘 구성을 해서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서 9월 내지 10월에 산업전이 있더라고요. 그즈음 해서 방역 목표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에는 전라남도 의회 도정 및 교육 행정 질의 및 답변 생중계를 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가 3사가 동시에 독건으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순천에서 있었던 우수 중소기업 농산품 박람회를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오늘입니다.

광주 MBC에서 제작한 5.18 44주년 특집 다큐 그가 죽었다 편이 지금 광주 MBC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하고 오늘 같은 시간대 저녁 9시에 공동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클래스 시즌 3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5월에 5월 달에는 지난 공개홀에서 양 이틀 동안 제작을 해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했고요. TV 프로그램 포맷으로 만들어서 추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도 매월 지금 마지막 주 목요일 현장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시 때 30분 정도 편성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또 사장님 말씀 곧 뉴스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지난 16일 날은 본 계열사 편성 책임자회를 서울 MBC에서 가졌습니다. 그때도 광고담당국장이나 편성국장들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MBC 프로그램 경쟁력이 회복 추세에 있다. 그래서 전 방송국의 시청률 TOP20에 6개가 포진돼 있는 상태로 해서 공동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진 상태로 그래서 MBC 프로그램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광고 점유율도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 물량은 디지털 쪽으로 많이 빠져서 조금 올해도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있어서 아닙니다. 시가 상당히 앞서 가는 추세여서 지금 좋은 지금 올해 경제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파리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기간에 편성 계획과 개편 의견 수렴 등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파리올림픽도 MBC 채널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본사부터 지금 편성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관련입니다. 재난 방송 관련해서 상반기 교육훈련을 지난 14일 날 티비 구조에서 약 20명 정도 직원들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요. 방통위에서는 내일 현장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대비해서 그 방송 시설 저희 송출시 이런 상황들을 점검해서 체크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매년 1차례 이렇게 현장조명 방송에서 나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개막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저희들은 디데이 D-10부터 채널버그라고 해서 상단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는 형식으로 그 D-10부터 시작을 했구요. 그래서 어제가 디데이였고 6월 2일까지 지금 개최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표기해서 조금 더 연장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5월 29일에서 6월 1일까지 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기간 동안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주요 추진계획인데요. 6월은

특집 프로그램 등 앞서 보고 드린 그 특집들을 지금 뭐 꾸준히 지금 계산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클라쓰는 6월 17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좀 멀리 가서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가평 쪽에 인제 크루즈하고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제작 지원협원이 좀 사업센터하고 콘센트를 하고 잘 좀 레이드를 시켜서 가평 크루즈 및 가평 데보니아 정원에서 트로트 플라스를 동계 녹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 뿌려서 출장 다녀오는 6월 5일에는 지역 MBC 뉴미디어 협의체도 있는데요. 뉴미디어협의체에서 조금 저작권 이슈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전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추진계획까지 마치고요.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부분들 반영한 것을 리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인 섬 관련 콘텐츠 제작 요망하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보고 드린 대로 여수 섬 특집 2부작 및 또 6월부터는 섬마을여행사라고요. 6부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의 솜품인데요. 그래서 금오도를 비롯해서 연안에 있는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쪽의 섬들 위주로 해서 6부작을 기획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집값 상승 중립지구 분양가 상승 등 취재 요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순천대 의대 관련 부분도 동부 지역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보도센터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지만,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뉴스 브리핑이나 YMCA 토론회 여러 코너를 통해서 다수 반영을 시켰습니다. 순천대 글로컬 대학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반영 요망하셨는데요.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는 전국에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MBC 공동으로 좀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로컬대학 해당된 지역의 MBC들과 연합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공동계획을 논의해 볼 생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 인구 유출 문제나 청년층 용 인구 유입책 등 방송사 역할도 요망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라디오 전망대 뉴스 브리핑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여건의 장점 및 살만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를 요망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어바웃 우리동네 ENG 아이템으로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관광특집을 통해서 여수 지역의 곳곳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고요. 6월에는 또 고흥 쪽에 이런 부분들 아이템으로 해서 특집 형식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여건 콘텐츠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 '트로트클라쓰'는 늘 공개방송을 통해서 녹화할 때 팬들이나 시청자를 초청하고 있구요. 그래서 소요트장 버스킹이라든가 낙안읍성의 어떤 그 국악과 어우러진 트로트 버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콘셉트로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또 콘텐츠에 적용되는 걸 보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부담도 가질 거고, 권한도 높고 저 MBC가 과거에 보게 되면은 KBS하고 비교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 좀 더 경쟁력이 회복이 돼서 이전에 있었던 MBC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태 보도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 보도센터장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시고요. 추후 위원님들 의견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의대 공모 반발이 계속 전남도의 의대 공모 관련해서 지역에서 반발이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기사를 좀 많이 썼고요. 또 2021년 했던 의대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한 불신도 제작해 보도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순천대 의대 유치 소망하는 뉴스는 계속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지금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립니다. 전남 교육청에서 상당히 심열을 들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연계해 미래교육 관련 특집까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달에 방송을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도시에는 지역 농어촌 도시죠. 농어촌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 중소도시의 미래 교육은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그런 걸 한번 저희들 특집까지 엮어서 미래교육 박람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섬 박람회는 2026년에 열리는데 기간이 늘어났지만 예산이나 콘텐츠 고민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제작해서 보도했고요. 알다시피 지금 여수가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이나 또 GS 칼텍스에서 포상도 했지만, 목숨 바쳐 생명 살린 의인들 이런 내용도 제작에서 보도했습니다.

저희들 그 뉴스레터는 지금 우리 박경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집필진에 포함돼 있어 계시지만 13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월수금 음 월요일날 3건 수요일 날 3건 이렇게 나가는 거 외에 집필진을 강화해서 교육 부동산 음식 의료 법률 이렇게 13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따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기고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월 달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오늘 뉴스를 보셨겠지만, 전남에서 의대정원 200명을 요청했는데 전남대 의대만 좀 소규모 늘었고 전남도의 요청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계속 공모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계속해서 취재하구요. 그다음에 지역의 올해 이제 장마하고 태풍이 예상되고 있는데, 상당히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작년보다 1~2개 정도 더 온다는 그런 예상인데요. 요번 예보 기사도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오늘자 오늘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새 국회의원 활동 이런 내용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프랑스 안시를 얘기했는데요. K-디즈니 프로젝트입니다. 순천에서 어 프랑스 안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건데 해외 사례는 어떤 건지. 이게 정말 우리 지역으로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프랑스 안시 현지 가서 저희들이 기자가 가서 현지에서 바로 섬세하게 뉴스를 제작하도록 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쌀값이 상당히 좀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뉴스로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한 뉴스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구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의대유치 관련해 가지고 요즘 동서가 이 지역감정으로 지역 간 감정 갈등이 심화돼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동부 지역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요. 서부에서는 보게 되면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의대 유치에 대한 기본 안에서 아마 또 이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되게 되면 서부권이 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예 방송사업센터장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달 추진 실적입니다. 요새 MBC가 현재 광양 그 LF 스퀘어에 CGV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위아래 엮다운은 좀 있는데요. 4월 달에 개봉했던 범죄도시 4 이게 어찌 됐건 이슈가 돼서 아직까지도 예외가 좀 대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누적 관객 수 약 한 1113만 정도까지 현재 누적이 돼서 저희 극장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설계자라는 강동원 나오는 국내 한국 영화로 개봉이 돼 있습니다. 5월 여수 아카데미 오늘입니다. 5월 30일 고도원 시인 초청해서 여수시 문화홀에서 오늘 아카데미 3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행사는 끝났습니다. 제목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정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아카데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뮤지컬인데요. 5월 달에 5월 14일부터 19일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뮤지컬 썸데이라는 대학민국 뮤지컬을 소극장에서 행사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6월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어 6월 아카데미는 6월 13일 성진 스님, 화상용 신부를 초청해서 문예회관에서 마음챙김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6월 아카데미 개최할 예정 그리고 7월달은 뮤지컬 대형 뮤지컬인데요. 노트르담 드 파리 여수공연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연말을 대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티켓 오픈은 돼 있고 현재 40프로 이상 예매는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원작은 빅토르 위고 작품인데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콘텐츠센터장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8월 달에 저희가 워터밤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은 싸이 흠뻑쇼를 진남 경기장에서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워터밤이라고 해서 좀 더 MZ세대를 겨냥한 아이들 전국적으로도 한 8개 지역 거의 다 방역권 위주로 하는 건데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여수 전시에 좀 참여를 해서 엑스포 스카이트워 야외 공간에서 워터밤 전국 투어 공연을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0일 개최를 할 예정이고 현재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관심이나 아니면 연배들이 MZ 세대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좀 소화하기 힘든 출연진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지코라든지 원래는 박재범 같은 경우가 투어의 메인이었는데. 박재범은 올해는 지금 지역투어를 안 하고요. 저희는 지금 출연진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 분들이 뭐 요즘 핫하기는 합니다만 비비라든지 권은비도 있는데, 아마 출연진들 일정하고 현재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힙합 그리고 아이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 그대로 물총을 쏘면서 즐기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세계박람회장의 엑스포장에서 이 시즌에 맞춰 거처서 쇼 챔피언이라는 케이팝 무료 공연과 또 야간에 하는 나이트런 가족 단위 아니면 즐길 수 있는 저녁에 나이트 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리고 맥주 페스티벌 포함해서 전체적인 페스티벌 한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8월 말일 주간을 저희가 여수를 좀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소감, 제안 들어보는 순서 힘들어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 박병희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의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천대도 마찬가지고 순천시도 이번 일로 동서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 서로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전남뿐 아니라 다른 광역

자치단체도 보면 경기도도 이 그런 갈등들이 있고 지역 간 갈등 이쪽에는 초지역주처럼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동부권이 좀 더 나왔지만 그동안 이런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언제나 불공정한 게임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서부권에 비해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서 공모에 불참한다고 할 때 다들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터져야 될 문제들이 맞춰져서 터진 것 아닌가 물론 전남 내에서 이제 화합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남 동부권이 조금 더 동부권 내에서 좀 화합하는 것부터 잘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순천시와 광양시는 고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여수는 시민단체나 시의회는 뭐 전남 동부권의 의대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시민들이고 시민단체들이고 또 그걸 조금 도모하는 곳은 뭐 제가 말씀마다 여수 MBC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가 그 주요 매개체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MBC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도 드리고 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좀 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의료 서비스 면에서는 서부권이 종합병원급도 한 5개 정도 있고 우리는 성가를로병원과 한국병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응급환자로 병원에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에서 죽게 되는 숫자가 서부권이 더 많습니다. 인구 규모가 작은데도 중증응급환자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그쪽에 종합병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면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동부권에 두는 것이 더 맞습니다.

#### 박성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아주 잘 봤습니다. 근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여수MBC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다니거든요. 뉴스를 보는데 저도 그냥 기존에는 좀 스쳐 지나갔던 것이었는데. 어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와 뉴스 간의 빈 시간에 그 아날로그 노이즈 칩 소리 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넣었을까? 저도 그때 말을 듣고 다시 들어보니까 뉴스사 뉴스사이 행간에 귀가 좀 예민하신 부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조금 다른 행동이나 아니면 괜찮은 소리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뉴스처럼 그 부분을 아예 떼버리거나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조애숙 위원

오늘 이렇게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이럴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책임감도 느껴지고 보람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환경 쪽으로 한 번 지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전남도가 모든 축제에 일회용품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회 용품을 사용한다고 발표 미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곡성 장미 축제까지 그래서 상반기에 아 지금 현재까지 9개의 축제가 끝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반기가 이제 6월 1달 남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한번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뤄졌으면 또 하반기에 그때도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렇게 제안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순신 광장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분들 캔 분리수거 이렇게 한

다고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분리수거 하면은 비용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이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우리 여수에는 그게 몇 대나 있고 그것이 분리수거가 되면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아 인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 냉동식품 오면 그 얼음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여수시하고 각 단체들 MOU 체결을 재활용 이렇게 각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재활용 바구니를 놔둬서 거기에 갖다가 넣으면 그것은 또 재활용해서 쓰자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번엔 제가 인제 환경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되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 김기웅 위원

여수 인구 유출 문제 건에 대한 걸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인구 유출되는 그 양상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 안으로 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인구 유출되는 거면 보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취업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 양상들을 좀 보면 크게는 이렇게 산단 안에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이제 스크랩이 되고 사업이 문을 닫아서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전환 배치가 돼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물론 이제 여수가 주어진 하지만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산업이 지금 이제 여수 산단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협력사들의 일거리가 많이 줄었기도 하고 울산에 있는 S-OIL 같은 경우 샤프인 프로젝트라고 올 하반기 가을부터는 10조짜리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수에 살고 계시는 플랜트 노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장기로 저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여수 안에도 일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1년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또 빠져나가고 일이 또 거기서 정착화가 되면 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 대기업들이 대부분 내지는 산단으로 신입사원들을 다 뽑아가지고, 오면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취업난방 한계선 취업난방 한계선은 판교로 끊는데 내가 그 판교까지 끊고 여길 내려와서 회사를 왔는데 나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사실 사택이라는 제도인데 사택이 이미 노후화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아니겠느냐 근데 개선하고 싶고 하지만 시는 허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여수로와 안 오고 조금 더 좋은 데가 광양하고 순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여수 안에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나 뭐 이런 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게 건드리기에는 좀 걱정스러운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MBC나 언론에서 그 문제점들을 좀 정당하게 내지는 좀 더 공정한 눈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게 아마 조금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했던 그 의인 표창 사항에 대해서 취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또 되게 호응도도 있었고, 또 서울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들도 아 이런 일들까지 했어라는 칭찬이 있어서 또 잘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보도센터장

산단 문제는 저희 취재 곧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황지 기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다

만, 섭외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예민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취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의 반영자료에 아마 나올 겁니다.

### 위원장

우리 순천여수 광양이 앞으로 10년 내에 인구가 거의 30프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도시계획도 지금까지는 확장성에서 앞으로는 집중화적으로 도시계획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맞춰서 좋은 어떤 그런 콘텐츠, 보도가 나온다면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지자체도 보게 되면 벌써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수, 순천, 광양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분석을 아주 예리하게 해갖고 지금 예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참 기분이 좋은데요.

### 박소정 위원

저는 오늘 오면서 시청자 위원의 역할이 뭘까? 내가 시청자위원인데 그 일상에 바쁘다고 해서 어 잘 들여다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위원이 해야 할 일은 이거지 않는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수 MBC에 대한 시청 의견을 묻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이 시청자 위원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반성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인제 뭐 제가 홈페이지에 좀 지적했던 것들이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저는 요즘에 여수 MBC 아까 지금 시청률이 앞섰다고 하는 거는 언론의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방송에 보면 MBC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언론이 항상 보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 다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MBC는 좀 그러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같이 협력할 보도는 보도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MBC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박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언론의 제 기능을 느끼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수 MBC 보도를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보면 뭐 앞에 있다고 해서 칭찬이 아니라 옛날에는 보면 자막이 맞춤법이 틀린다든지 띄어쓰기도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앵커의 근데 앵커도 잘하지만 보도도의 질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다양하고 좋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여수 MBC가 로컬 방송으로써 참 수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인제 아쉬운 건 이게 이제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하면 여수 MBC 뉴스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나오니까 볼 수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MBC 뉴스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KBS는 좀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튜브를 잘 들여다보는 대상이 있고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대상이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람들은 어 뭐야? 요새 MBC는 뉴스를 잘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충제로써 인터넷 검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디즈니 지금 이런 데 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보면 어 이게 굉장히 젊은 가족 단위로 이게 관광을 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있지만 지역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 갔더니, 뭐 건물 같은 인형이 딱 서 있고 근데 이것이 마치 K 디즈니 또 뭐 애니메이션 도시 그런다고 해서 애니메이션 도시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취재할 때 지역 실정에 맞는 애니메이션 도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까지 담아서 좀 취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구를 하나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의 문제인데 정치보다도 더 문제 바탕은 교육이라고 보는



데 전라남도 교육청에 100억을 들여서 미래 글로컬 교육박람회를 하는데 이거에 그냥 언론은 항상 저는 앞서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언론은 지역 공동체에 뭐랄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정확하게 보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의 성과와 이런 것들을 그냥 보도만 할 게 아니라 이거에 과연 지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게 전남 교육의 발전에 어떤 성과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심층 취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섬특집 관련해서 연예인이 와서 섬 시골살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지난번에 해남 진도 그다음에 저기 장성의 최수종이 와서 여행사감이란 프로그램을 했는데 좀 재미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섬 사람들이 섬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좀 재미있고 그들의 공감이 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역할론 이거를 미리 주문해서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인수 위원

박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애리하고 심오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먼저 이렇게 이전에 그 회의 때 나왔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내용을 저기 최근에 그 사회공헌 관련된 어떤 봉사를 보면 더 나가보면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많이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실제 소외 계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과거대비 많이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최근에 여수산단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히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예울마루나 정보 같은 대규모의 어떤 사업은 최근에는 없었지만 지금 기업이 뭐 어려워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줄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전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그래서 앞으로 자꾸 공헌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데 또 사회 공헌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어떤 지역 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방송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다뤄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려봅니다.

### 박경숙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좀 생겼는데 이를테면, 기후 위기 관련해서 캠페인 정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피곤해한 방식의 캠페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효천고등학교하고 매산여고에서 어떤 식의 기후위기 교육을 했냐면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만 강의하고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지금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 이런 걸 글쓰기를 영상을 만들거나 피켓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의욕적으로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콘서트처럼 되게 재미있게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했는데도 그렇게 되었고 최근에 효천고에서도 학생들이 저렇게 똑똑하구나 정말 저마다 그 저마다 저렇게 다채로운 어떤 재능과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명칭은 정확하게 좀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뭐 기후 희망 콘서트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이런 주제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MBC 하고 협업을 해서 MBC에서 그런 것을 만든다면 이제 협조가 충분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MBC에 방송이 된다면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되게 의욕을 만

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 좀 떠올랐고요.

MBC에서 트로트 클라쓰도 하고 또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기획보도도 하고 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떠오른 생각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문제라고 박소정 선생님하고 오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교육이 미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건강하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지 그 지점을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부분 남 탓을 하잖아요. 누가 해줘야지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숙의민주주의예요 숙의민주주의연구소 장용창 박사라고 있어요.

그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육에 대해서 토론회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일회성 토론회가 아니라 각계 한 25명 정도 여러 계층에 지금 사교육 이제 그 장용창씨가 어디 학교의 교수로 일하면서 과외를 하거든요. 근데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을 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이 뭔지 우리들이 국가에서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 순천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들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향성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이제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지원센터하고 숙의민주주의연구소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짰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하기가 그래서 결국은 추진을 못 했는데 MBC에서 만약에 이 시와 교육청과 협업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되게 의미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상경 위원

저번에 인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왜 우리 여수 MBC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저희 고민 좀 해봤는데 여기 센터장님들 위원님들이 많은 이런 국민들이 같이 녹아내린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또 그럼 저 지난달 초에 왔습니다. 전남의 동북권이 정말 살기 좋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요.

저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 그러면 사기가 쪼느냐 인구 밀도도 적당하고 교통혼잡도 없고 KTX도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여수나 순천 부분에선 특히 관광산업이 잘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가를 누리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항하고 KTX와 같이 들어오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방 도시에 그런 부분들이 정조 여건 부분인데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도 정조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300명에서 한 500명씩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광양 지역 또는 순천 여수에 그런 정착을 할 거냐 아니면 인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아니면 애기들이 있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거냐라고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제 포항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서울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광양의 어떤 설립한 여수에 정착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짧은 콘텐츠나 이런 부분 소품의 어떤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좀 알리는 활동을 하면 또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안 되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시니어들도 이제 자기 고향이나 어느 도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눈이 보여야 되지 않

겠습니까?

어바웃 우리동네가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해주고 계시는데 올해 뭐 여름방학이나 그러면 젊은 분들이 보면 서울역에서 저는 이제 많이 인제 포항도 많이 가보고 인제 이렇게 지역도 많이 가고 요즘에는 서울에 계시는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 여름방학 때 어디로 갈까 강릉을 많이 서울에서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또 볼거리도 많고 고런 부분들이 또 강릉 쪽에도 MBC가 있는지 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럼 왜 강릉의 친구들이 많이 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박 2일 투어 코스를 짧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 여수 MBC에 토크쇼 있잖아요. 그 이슈를 잘 잡아서 하시는데 토론회 참석하는 패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 그냥 자칫하면 MBC의 수준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토크를 좀 수준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인제 결국은 패널들의 수준이기는 한데 이제 그게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어폐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방송을 자주 접하지 않다 보면 막상 현장에 오면 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얹히고 엉키고 설키고 횡설수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좀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MBC의 토크가 좀 수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좀 전하고요.

인제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이렇게 어 사람들은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내 삶과 직결이 돼야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막 5월달에 장마 같은 비가 오고 갑자기 후텁지근하고 그리고 요즘에 막 그 모기들이 벌써 기증을 하고 이런 거는 다 기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는 경제 위기다 그래서 경제 위기다 보면 다 나의 문제로 오잖아요. 사실은 이 기후로 인해서 농촌이든 어촌이든 기업이든 모두가 뭐 소상공인이 됐든 모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다 해서 이것을 시리즈로 좀 어떻게 MBC에서 좀 제작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이 뭐냐 기후 위기는 앞으로 심각하게 올 건데 이것을 여수 MBC가 로컬방송으로써 먼저 좀 앞서서 이 문제를 지역민들이 이제 같이 관심 갖고 문제를 좀 인식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세계 정상들이 놓고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세계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수 MBC가 기후 위기는 경제위기다 해서 좀 어떻게 하나 멋지게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 보도센터장

기후 위기하고 인구 절벽으로는 저희들이 기획보도로 지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좀 할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시리즈를 뉴스인 이슈는 저희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패널도 사실 섭외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패널들의 수준이 높은지 안 높은지 저희들이 검증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대답을 유도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진행자나 아니면 뭐 요런 것들은 그리고 진행 방식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동서를 지역감정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수 MBC와 목포 MBC가 좀 나서서 이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이럴 때 우리 또 MBC가 좀 해결한다면, 참 더 좋은 안이 되지 않겠나 고민 좀 해 보시고 우리가 지역에서 전남이 뭐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발생된다면은 이걸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서서 주변에도 조금 서로 좀 격려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서로 협업이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EBS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숙고하고 발전적으로 소화해서 좋은 방송 마쳤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